미래지향 초현대식 DIGITAL 병원
전문센터 중심 진료, 시설장비 집중투자
경기서북부 의료 Herb 발돋움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명 지 병 원

첨단 디지털병원 면모 갖춰 再開院

'음악과 미술'이 있는 병원, 현대적인 감각의 시설을 완비하고 미래를 향해 도약의 나래를 펴는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명지병원(원장 金炳吉)이 최첨단시설과 장비를 갖춰 最尖端 디지털 병원으로 새출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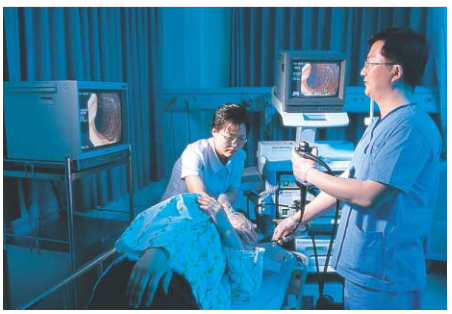
관동대의대 명지병원은 얼마전 Full PACS 가동과 최신 CT · MRI(2호기)도입으로 환자를 진단 진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이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Filmless Digital Hospital' 병원 구현을 통한 환자편의 및 의료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병원은 대학병원으로서의 위상확보와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아래 2000년 7월 신축공사에 착수, 과감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최신 시설과 첨단 장비 및 그에 걸맞는 우수한 전문 의료진을 확충, 명실상부한 의대 부속병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췄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위치한 관동대명지병원은 지난해 3월 지상 8층, 지하 3층 규모의 본관 건물을 완공한 데 이어, 11월 새로 지상 7층, 지하 3층 규모의 신관까지 준공, 첨단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환자 진료에 임하고 있다.

명지병원은 신관 완공으로 기존의 의학관과 본관까지 합쳐 모두 660개 병상을 갖추고(2005년 증축→800병상으로 확대 계획), 동시에 24개 전과목을 진료할 수 있는 외래 진료실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고객 중심의 진료 서비스를 펴고 있다.

1층로비에 초대형 TV(PDP중 제일 큰 것으로 스크린만 1200만원 상당)에서 이 병원 교수들이 지역 케이블 방송 등에 출연한 테입을 방영, 건강정보를 제공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우수의료진 확충, 전문센터 · 특수클리닉 중심 재편, 환자요구부응

최신 시설과 첨단 장비 확충과 함께 각 분야별 권위 있는 교수진을 국내외에서 초빙, 전문화된 진료 시스템을 완비했다.

전문센터 중심 시스템

장기이식 · 척추 · 심장병 · 소화기병 · 아동 청소년 · 종합건강진단 · 응급의료 센터 등 7개 전문진료센터를 구축했으며 비만클리닉 등 모두 27개에 달하는 특수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아동 · 청소년 진료센터外

아동 · 청소년 진료센터는 소아과 이외에 소아정형외과, 소아외과, 소아비뇨기과, 소아정신과 등 소아질환의 효율적인 진단과 치료를 한곳에서 할 수 있는 아동 전문병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센터는 고양시 만15세 이하 인구가 28%로 서울시 24%보다도 4%나 비율이 높은것에 착안, 전략차원에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소아과 모든 분과를 망라한 mini children's hospital 기능도 수행한다.

장기이식센터는 신장, 간 등 각종 장기이식을 위한 국내 최고 의료진과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차후 이 부문 권위의 박기일 교수(연세의대)가 소장을 맡게될 예정이다.

관동대의대명지병원

종합건강진단센터 등

종합健診센터는 첨단장비인 암 조기 진단기(PET)를 비롯, 최신 첨단 장비를 갖추고 각종 질병의 조기발견과 진단을 통해 평소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새로 단장한 건진센터는 One Stop business를 추구, 유방촬영실 특수촬영실·안과 ENT·치과·초음파실·내시경실 등까지 두루 다 갖추었다. 채혈실 의자를 주문제작하여 키 낮은 소아용은 별도로 갖췄는데 채혈 후 잠시 쉴 수 있도록 손을 올려 놓는 덮개까지 부착했다.

또 각종 소화기 관련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내시경, 초음파 등의 첨단장비를 갖춘 소화기병센터을 비롯 심장병센터, 척추센터, 응급의료센터 등은 이 병원이 자랑하는 전문진료센터이다. 소화기병센터의 경우 수면내시경, 직장내시경, 초음파까지 한군데에 다 배치해 One Stop service(biopsy까지)가 이루어지게 하는 등 전체 전문진료센터에 대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센터 안에 집어넣도록 신경을 썼다.

센터와 병행하여 각종 특이 질병을 효과적으로 진단·치료하기 위한 당뇨병·뇌졸중·피드백최면·스포츠 손상클리닉 등 각종 클리닉이 27개에 이른다.

최첨단장비

명지병원이 새롭게 변모한 것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장비 하나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최첨단 특수 장비를 들여 놓는데 아낌없는 투자를 했다는 점이다.

특히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특수장비인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기)라는 장비는 가격이 20억 원대에 이른다. 이 장비는 방사선 의약품을 이용, 신체 각 조직의 기능과 생리학, 생화학적 대사를 영상화해 암을 조기에 진단해내는 장비로 각종 암조직이 퍼져있는 신체부위와 그 정도를 알아내 조기발견을 통한 암완치 가능성을 높여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혈액을 최첨단 장비로 자동분석, 최단시간 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혈액자동분석기(Hematology Autoanalyzer)와 의료영상 저장 전송시스템(PACS), 총체적인

진료전달시스템(OCS),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등의 구축으로 필름 및 종이 차트, 슬립이 없는 디지털시스템 구축, 미래 지향적인 병원으로 내닫고 있다.

종합 고객서비스센터 운영

특히 이 병원은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종합고객서비스센터에 진료예약센터를 설치, 핫라인 전화와 전용 팩시밀리, 인터넷을 통해 진료상담과 진료예약이 한번에 이뤄지게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One-Stop 서비스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진료예약은 전화(031-810-6114)와 전용팩시밀리(031-810-6115), 인터넷(www.kdmc.or.kr) 모두 가능하며 예약일 하루 전에 예약 사실을 통보해 주는 '해피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병원측은 앞으로 진료예약센터를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진료예약 뿐 아니라 고객 불편사항과 고충을 접수, 처리하는 한편, 협력병원 및 개방병원, 외래교수 등을 통한 지역의료 협력에 이르기까지 일괄 처리되는 종합고객서비스센터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역 의료 협력

고양 지역 주민들의 건강지킴이를 자처하고 있는 명지병원은 지역 의료협력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고양·김포·파주지역 30개 병·의

원과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 의료진과의 상호자문을 통한 의료정보 교환은 물론 최첨단 의료장비 개방, 환자 이동진료, 각종 세미나 및 학술회의 교류까지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협력병원들은 명지병원의 첨단 장비와 수술실 등을 활용해 공동 진료하는 등의 고객 중심 진료시스템을 구축, 종합의료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병원 위상을 정립하고 장기적으로는 相生(Win-Win)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양한 봉사활동

지역주민과 하나 되기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펴고 있는데 건강강좌

관동대의대 명지병원

개최, 지역 학교 장학금 전달, 독거노인 백내장 무료시술, 무료 치매 테스트 등을 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우즈베키스탄 의료 봉사활동과 강릉 수해지역 집짓기 운동인 헤비타트에도 참여, 의료지원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특히 사회사업팀을 신설해 장기기증 상담, 자원봉사대 운영, 후원금 모금 및 운영, 무의탁자 및 고아·미혼모 지원사업도 하고 있다. 명지병원은 이러한 사회봉사활동 외에 최신 시설물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우선 500명 수용 규모의 현대식 강당을 지역민 문화생활 공간 및 건강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250석 규모의 구내식당도 지역민에 개방할 방침이다.

의료봉사

의료봉사활동은 한국사랑의 집짓기운동본부에서 지난 2002년 태풍 루사로 많은 피해를 입은 강릉과 삼척지역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무료로 집을 지어 보급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2003 한국번개건축』행사 현장 봉사자들의 부상을 무료로 치료하기 위해 마련된 바 있다.

설립자 유상근 박사의 호(號)를 딴 방목의료봉사단은 해외선교 차원에서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했는데 사마르칸트 국립의대 교수와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와 토의는 물론 환자 진료를 같이 함으로써 의학교류에도 일조했다. 봉사를 다녀온 후엔 '보도 사진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점심시간 피아노 선율 감상…지역민 동참

간호사들이 원무과와 사회사업과 등 부서직원과 함께 매주 월·화·수·목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1층 로비에서 직접 피아노를 연주, 재즈와 피아노곡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환자들에게 선사,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훈훈함을 전해주고 있다. 이 시간은 육체의 양식을 먹고 나서 마음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라고

특히 이 같은 간호사들의 활동이 인기를 얻으면서 환자와 보호자들은 물론 인근 교회에서도 이에 동참, 함께 연주와 합창을 하는 등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1층

로비 투약대기실 앞에서 피아노연주를 해도 전혀 ECHO가 없는 이점도 살리고 있다.

찬양봉사도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에는 교회에서 나와 본관 1층에서 피아노 연주와 성가대 합창 중창 등 찬양봉사로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준다. 고양시 850개 교회 사모(목사부인)합창단 제1회 공식 발표회도 가진 바 있다.

음성인식 수술

음성인식 로봇수술 국내 첫 성공, 의사가 말로 내시경 장비 조절-채윤석 교수팀

국내 최초로 설치된 내시경 전문 수술실은 최첨단 음성인식 시스템이 갖춰져 수술의사의 음성지시에 의해 로버트형 기계가 신속, 정확히 작동하며 수술을 도와 수술시간 단축과 합병증 발병 가능성을 크게 낮췄다.

또 내시경 수술 장면이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강의실로 전송,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현장교육이 이뤄질 뿐만 아니라 나아가 협력병원 또는 해외 의료진과의 원격수술 협력도 가능하게 됐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의사의 말을 알아듣는 음성인식 수술 로봇 시스템을 도입, 이를 이용한 갑상선 절제 수술을 성공시켰다. 로봇수술은 앞으로 정형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 다른 임상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진단검사의학과 혈액자동분석기는 바코드를 부착해 넘기면 검사항목 로봇팔이 올라와 자동으로 체크하는데 이같은 로봇팔은 우리나라에 5대밖에 없다고 한다.

팔다리 붓는 암후유증 손상부위 흡입해치료

림프부종클리닉 염창환 교수팀은 유방암 자궁암 등 여성암 후유증으로 팔다리가 붓는 이른바 림프부종을 간단히 제거하는 새 수술법인 "부종 부분 감압 흡입술"을 선보여 주목받고 있다.

이 수술법은 암완치 후 필연적으로 생기는 부종을 조직 손상으로 변화가 온 병변 부위(손상부위)만 부분적으로 흡입하는 것

으로 이전의 전신마취 지방흡입술에 비해 수술시간이 짧을 뿐 아니라 위험 부담도 적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관동대 명지병원은 또 의과학연구소와 가정의학과 공동주최로 제1회 비타민치료의 최신지견 워크숍(03. 11. 30)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임상의학 학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각종 첨단 현대식 시설과 철저한 환자 배려 강당-최첨단 시청각기자재 갖춰

새 강당은 보조석 포함 550석 규모로 강의를 겸할 수 있는 최고급 의자에 책받침대를 부착했으며 전면에 설치한 십자가에 후광까지 들어가게 하여 신앙심이 절로 우러나도록 했다. beam project는 천정에 고정하고 버튼을 눌러 내려서 사용토록 장치하여 사용시마다 설치하고 사용후 걷어가는 번거로움을 더는 등 최첨단 시청각 교육장을 갖추었으며, 가장 아끼는 그림(시가 1억원을 호가하는)을 강당에 내걸만큼(곡면인 벽면에 유리 케이스가 안되니까 아크릴로 맞춰서 건 세심한 배려)강당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입원환경-쾌적, 편안함 고려

환자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입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신관에 현대식 병실을 갖췄는데, 특히 7층 VIP실(가족용 2실, 일반용 2실)은 비서실 및 부엌을 따로 두고 목욕탕 샤워실 등을 갖춘 호텔 Sweet room에 손색없는 시설로 입원객을 맞이하고 있다.

환자중심 실천

소아 병실에 놀이터(외래엔 게임기)를 갖췄고, 모바일을(18만원 상당) 천장에 매다는 등 과별 특성에 알맞는 시설을 구비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각 건물 벽사이에 대나무(좁은 공간과 환경속에서도 생존 가능한 樹種)를 심어 늘 푸르름을 음미토록 했다.

본관·신관 수술방(3층) 병실을 헐고 Bridge를 만들어 통로를 연결해 환자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건너갈 수 있게 했으며, 상담실을 층마다 마련한 것은 얼마나 환자중심 병원을 지향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각종 시설 설비 환자 우선 배려

응급실에 전용 엘리베이터, 전용초음파, 응급 소수술실을 두었으며, 방사선과 소속으로 별도 혈관촬영실, 뇌파, EGG 등으로 구분하면서도 접수는 한군데서 하게 했고, 의학관 개조공사를 하면서 1층에 정원을 마련했으며 영안실 각실마다 전용샤워장과 화장실을 구비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지하 교직원식당 게시판의 '축하합니다' 코너는 매우 인상적이다.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휴게공간

옥상 휴식공간엔 지압보도를 설치했으며 조경수로 향나무를 잘 가꾸고 있는데, 옥상에 휴게실 형태의 별도 흡연구역도 마련 흡연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colorful한 파라솔도 세워놓아 따뜻한 봄이나 여름에 그늘막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1층 지상 110평 옥상 300평 정원에는 정원테투리 철제 가드레일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주민 산책 및 휴식장소로 활용토록 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관동대 명지병원은 지난해 6월 1일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일대에서 개최된 제 1회 MBC 인라인 마라톤대회에 협력병원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현대적 건축물로서 SBS드라마 스페셜 '때려', '천국의 계단' 등의 촬영장소로도 활용되어 지명도를 높였다.

관동대의대 명지병원

INTERVIEW

김병길 관동대의대 명지병원장

병원 설립 목적과 이념

명지학원 설립자인 故 유상근 박사님의 "하나님을 믿고 부모님께 효성하며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기독교의 깊은 진리로 학생들을 교육하며 … 세계 평화와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성실 유능한 인재를 양성한다"가 설립정신이자 이념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대부속병원으로서 우수 의료인력 양성과 임상연구 기능 수행함과 동시에 지역의료계 중심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병원육성 발전을 위한 앞으로의 역할

96년 명지재단에서 관동대를 인수했는데 관동대는 50년전 강릉에서 선교사가 육영

사업을 시작한 것을 접수해 출범하여 내년이면 대망의 반세기가 됩니다.

설립자인 방목 유상근 선생께서 의대를 만드는 것에 남다른 의지를 보였는데 7년전 재단서 의료계진출을 겨냥, 명지병원을 인수했으며 이후 모든 역량을 의대 및 부속병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명지병원이 대학부속 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기초를 확실히 다지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당장 Hardware 만은 서울 어느 대학병원 못지 않을겁니다. 건물 3개동 가운데 20년된 의학관을 remodeling하여 의대부속 건물로서 4, 5, 6학년 자율학습실, 교수실, 도서관과 병원장실도 여기에 두도록 하되, 신관은 완전히 환자중심 병원으로 꾸며지게 됩니다. 앞으로 Software 격상에 발맞춰 인력충원 및 기존인력의 역량계발에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사전준비로 정신혁명을 하자는 취지 아래 교수급 전원과 간호, 행정 계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연간 네차례의 워크숍을 가졌는데 상당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관동대의대 명지병원

우수 의료진 확충

의료기관에서는 무엇보다도 훌륭한 진료스탭 영입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재단과 협의하여 임금을 현실화했으며 최근 성남 인하병원서 신경외과, 정형외과, 방사선과 전문의를 초빙했고, 정형외과 의사를 미국에서 영입했으며, 스탭 충원을 좀 더 하면 서울 어느대학에 손색없는 진용을 갖추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편 이비인후과, 피부, 성형, 재활의학과는 어텐딩시스템을 적용, 개업의가 들어와 진료하고 계약 비례로 수익을 배분토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놓았습니다.

의학교육 내실화

의학교육은 올 9월부터 예과, 본과를 합해 6년제 의대시스템을 추구하고 있는데 2004학년도부터 1·2·3년은 강릉, 4·5·6년은 고양캠퍼스(명지병원)에서 수업 및 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의대 4,5,6학년 수업이 2004학년도부터 여기서 이뤄지는 만큼 원목·교목을 겸할 수 있는 목사님을 모셔왔으며, 교직원 채플과 성가대를 만들었습니다.

의대졸업 후 수련교육이 매우 중요한데 입학정원 50명을 명지병원서 다 수용하기 어려워 35명은 제1병원, 15명은 제2병원(강릉의료원 인수 검토)으로 나뉘도록 하여 본교에서 의대졸업 후 교육까지 다 책임지겠습니다. 특히 의학교육은 훌륭한 의술을 지닌 의사 양성 못지않게 충실한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비도입 등 과감한 투자 및 고려사항

예전쓰던 장비 90%이상 새장비로 교체해 장비값만 400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MRI, CT, ANGIO 모두 기존장비가 있으나 새모델을 추가도입했구요.

20억원 상당의 PET, 임상병리 자동분석기 및 ANGIO도 입체적인 사진나오는 것으로 새로 도입했습니다. 반면 Linac(선형가속기)은 필요치 않다는 판단(불과 15분 거리의 국립암센터에 있음)에서 도입직전 단계에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관동대의대 명지병원

경쟁력 확보 등

인구 85만인 고양시에 5개 병원이(공단, 백, 암센터, 불교, 명지) 각축을 벌이게 되는데 신관 건축때 工程이 늦어질지언정 꼼꼼하게 보완하고 마무리함으로써 인근 경쟁병원과 최소한 같은 조건 이상으로 새출발한다는 것을 모토로 삼았습니다. 신관 개원으로 임상교수가 40명에서 90여명으로 두배 이상 늘었는데, 진료·간호·진료지원 전분야를 망라한 QI활동을 강조하여(경진대회 개최 우수팀 시상)의료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도 헐고 신축했는데 불료, 유교, 기독교 등 각 종교 의식을 모두 할 수 있게 영결식장을 꾸몄으며, 건전하고 청결한 장례문화 정착에 일익을 담당토록 했습니다.

병원의 장점은

87년부터(현병원 전신) 17년간의 진료경험을 바탕에 둔 가운데 새로운 차원의 병원이라는 이미지가 장점입니다.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분야의 의술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부분에는 해당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최상의 진료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지난 수년간의 과감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최신 시설과 첨단 장비를 갖추면서 특히 1대에 20억원이나 하는 최첨단 특수장비를 들여 놓는 투자를 아끼지 않았는데 이런 투자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로 고객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병원 임직원들의 화합을 위해 어떤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쓰는지?

직원들의 화합을 위해 병원장을 비롯한 임원들 모두 권위의식을 버리고 격의 없이 직원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또 산악회와 테니스회, 직원성가대 등을 비롯한 취미별 직원 동호회에 지원금을 지급하며 직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병원보인 '파란나무'를 원외보로 성격을 바꾸는 대신 직원들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통로 확보를 위해 원내보인 월간 '명지병원소식'지를 창간, 원내 구석구석을 소개하고 직원들의 경조사는 물론 부서 구성원간 활발한 교류를 펼치고 있습니다.

병원 임직원의 자랑은

다양한 분야와 위치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구성원들이 모여 아름다운 병원을 만들기 위한 '하모니'를 연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각계에서 인정받는 우수 의료진과

친절과 봉사정신이 철저한 지원부서 직원이 고객을 향한 최고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하나같이 헌신적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상하 관계이기보다는 수평적 관계에서 상호 보완하는 파트너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단순히 보수를 위해 일하는 '직원'이 아니라 사회에 봉사하는 '봉사자'로서의 사랑과 희생정신으로 철저히 무장돼 있습니다.

명지병원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제도는?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고객에 대한 친절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친절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친절의 대명사로 불리는 일본 MK택시로의 해외연수에 이어 MK 신화의 주인공인 유태식부회장이 병원을 방문, 2차 친절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함께 자발적인 의료봉사 단체인 '방목의료봉사단'에서는 국내는 물론 해외 의료봉사활동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데 지난해 6월 우즈베키스탄으로 10일간의 봉사활동을 다녀왔는데, 그 이후에도 현지와의 끊임없이 교류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매년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명 지 병 원

환자들이나 지역사회에 어떤 병원으로 인식됐으면 하는가?

따뜻한 미소와 친절 그리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병원으로 인식되었으면 합니다. 2004

· 취재 : 홍보팀 전양근 · 유소영

관 동 대 의 대 명 지 병 원